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6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자치도-지역대학 글로벌대학 육성 업무협약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도내 대학 총장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장 직무평가 1위 등극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처음... 리얼미터 집계
기업 유치·미래산업 육성 등 노력 '결실'
"더 낮은 자세로... 전북경제 도약에 온 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전북도지사로 임성한 이후 2년여만으로, 리얼미터 집계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의 1위 등극은 그간 잦버리 사태이후 감사와 새만금국가예산 확보 난항에 이어 올해 도청내부 갑질 논란 등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년간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도전 경쟁 자세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육성, 스마트팜토리 확산, 특별자치도 출범 등 굵직 굵직한 성과를 낸 점이 도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선 8기 2년만에 12조 8,000억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이뤄낸 것은 김 지사만이 가진 특유의 도전정신과 강한 추진력, 촘촘한 국내외의 막강 인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 지사는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60.5%를 기록, 17개 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 평가수치에서 60%를 상회한 유일한 단체장이다. 지난해(57.0%)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1%), 3위는 김동연 경기지사(54.8%), 4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2.8%), 5위는 김태환 충남지사(50.6%)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잦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수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올해 초 3위로 올라섰고 지난해 2위 탈환에 성공했다. /이만호 기자

원광대 글로벌대학 선정 '한마음'

전북자치도, 도내 17개 대학과 협약 통해 본 지정 응원
전북대·원광대와 상생협약도... 생명산업 분야 공동협력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4년제 10개 및 전문대 7개 등 17개 대학 총장이 원광대의 2024년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전북자치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원광대의 글로벌대학 본 지정을 응원하고 지역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원광대 박성태 총장, 원광보건대 백준홍 총장 및 지난해 글로벌 대학에 선정된 전북대 양오봉 총장 등 지역대학 총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와 지역대학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공동 혁신을 통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동반성장·발전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협약을 통해 올해 전복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대학에 예비지정된 원광대+원광보건대(통합형)가 최종 선정되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도와 기존 글로벌 대학인 전북대, 예비지정대학인 원광대+원광보건대 간 4차 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4차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생명 산업 협력 방안 모색 △생명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인적 교류 △생명 산업 분야 학점 교류 및 (비)교과 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 △세계농업대학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생명 산업 산학협력 분야의 공동연구 등 원광대 글로벌 대학의 특화 분야인 생명 산업(농생명, 의생명, 바이오, 생명 서비스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원광대는 농생명, 의생명 분야의 강점을 살려 '생명 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내세웠다"며, "지난해 거점국립대인 전북대에 이어 호남지역 사립대의 중심

인 원광대가 글로벌 대학에 선정돼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양 날개를 달고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지역대학의 응원과 협력은 전북대가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이번 협약이 원광대의 글로벌 대학 최종 선정을 위한 또 한 번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전국 1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4월 원광대+원광보건대(통합형) 등 20개 대학을 예비지정했으며, 26일까지 본 지정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교육부 평가를 거쳐 9월경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월 20일 명단 공개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예고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상습 체납자 383명 중 46명을 제외한 337명에게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는 11월 20일

337명에 9월까지 소명기회 부여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다. 명단공개 제외 사유는 분할납부 성실 이행, 불복 소송 진행 중이거나 회생 절차 진행 중, 체납자 사망 또는

파산·청산 종결 등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개 대상인 337명에 대해서 3월부터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발송 등 공개 대상 제외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 체납액은 127억8,800만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는 1차 대상자 중 소명 기회에도 응하지 않은 체납자 10월에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에 행안부 홈페이지, 도보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기술혁신 기업 이노비즈 인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혁신 기업의 이노비즈 인증 지원에 나선다. 도의 지원내용은 △이노비즈 인증 취득 비용 지원, △이노비즈 인증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이며, 지원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이노비즈 인증 취득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다. 먼저 이노비즈 인증취득 비용 지원은 9월 20일까지 접수하며, 5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만호 기자

이노비즈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접수 기간은 8월 7일까지로, 60개사(일반과정 50, 심화 과정 10)를 지원하게 된다. 이노비즈 컨설팅 일반과정에 선정되면 이노비즈 인증취득 사전점검과 전문가 협조 컨설팅받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 종합정보시스템(http://md.j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